

**‘직지’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돌움에서 펼침으로’ 화려한 직지축제

“돌움에서 펼침으로”라는 주제로 9월4일부터 7일까지 직지의 고장 청주에서 2003 청주직지축제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개막 첫날 직지의 깨움과 돌움, 펼침, 축제의 부름 등 4가지 주제의 화려한 축하무대가 펼쳐진 가운데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청주 예술의 전당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개최된 개막식에는 2,000여명의 시민과 이원중 충북도지사, 한대수 청주시장, 홍재형 국회의원, 민재기 대한인쇄문화협회장 등 내빈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한대수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지를 세계의 브랜드로 만들어야 하며 청주를 인쇄의 성지로 가꾸어 나가자”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축제는 청주시가 주최하고 대한인쇄문화협회가 후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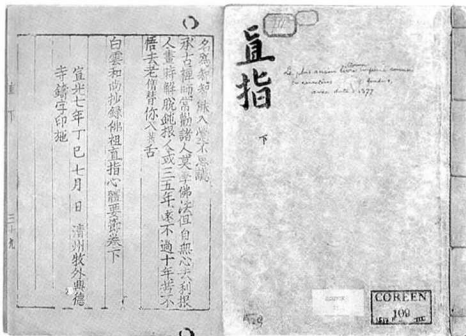
● 곳곳서 금속활자 숨결

대한민국의 자랑인 세계기록유산 ‘직지심체요절’이 인쇄됐던 고려시대의 모습이 청주시내 곳곳에서 재현됐다. ‘직지사랑 고려문화’라는 테마로 청주예술의 전당 전시실에 마련된 우수도서 전시, 세계기록유산 특별전, 고인쇄박물관에서의 조선초기금속활자본 특별전이 관람객들로 연일 붐볐다. 또 직지 학생서예대회와 직지 학생백일장에 참여하는 초·중학생들로 예술의 전당 광장을 꽉메운 열기는 활자와 연관성을 강조하는 성과를 거두기에 충분했다.

특히 이번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중 하나인 ‘현장학습 5학년은 다모여라’에 강서초등학교 등 청주지역 초등 5학년생 3천명이 참석해 교과서에서 배운 직지심체요절과 연계한 영상교육, 관람, 체험, 흥덕사지 방문 등 5개 분야에 대한 현장체험 학습활동을 벌여 놀이와 학습이라는 새로운 축제의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개막 첫날 오후 5시 상당구 석교동 육거리에서부터 상당공원을 거쳐 주행사장인 예술의 전당으로 이어진 고려퍼레이드는 지방 축제사상 처음 펼쳐진 직지가 간행된 고려시대 재현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갈채를 받는 등 축제의 백미가 됐다.

이어 저녁 7시30분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총체극 형식의 개막식에서는 잠든 직지혼을 깨운다는 천년중 타종으로 시작된 주제공연으로 참석한 2천명의 관람객들을 숨죽이게 했다. 특히 개막식 사회를 맡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말아 눈길을 모았으며 개막식 마지막 부분에는 내빈들과 학생, 시민들이 무대위로 함께 올라와 전통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등 보기드문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 조선초기 금속활자 특별전 모습

축제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직지를 알고, 사랑하며,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가치로 승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중요한 축제”라면서 “이러 계기로 청주를 현존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의 고향인 동시에 인쇄문명의 발상지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고 세계적인 학습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인쇄박물관 금속활자 특별전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는 이번 축제 기간중 ‘조선초기 금속활자본 특별전’을 열었다. 이번 특별전은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직지와 함께 우리나라 금속활자 인쇄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로 평가 받기에 충분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1403년 주조된 계미자의 서문이 달린 ‘소미가숙통감절요’ 등 100여점의 조선초기 인쇄등본과 특히 청주직지축제를 기념해 부산 공인박물관, 두산동아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보급 유물들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회는 11월 2일까지 계속된다.



◆ 민재기 인협회장 등 내빈들이 단상에서 북을 치며 직지축제를 축하하고 있다

● 직지심체요절' 디지털화 개통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직지의 보존과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1시20분 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는 직지심체요절 디지털화 개통식이 열렸다.

이날 개통식에는 한대수 청주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특히 연세대학교 미디어 관련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에바 마리아 하네르트 독일 구텐베르크박물관장, 허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부장 등 15명의 외국인 인사가 참석했다.

개통식은 △ 허권 문화부장의 경과보고 △ 한대수 청주시장 인사말 △ 임정택 연세대 미디어아트센터소장의 직지 디지털화와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의 설명을 들은 후 개통식이 진행됐다. 직지 디지털화 사업은 1억6천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 직지 디지털 이미지 수록 △ 직지 국·영문 해설판 작성 △ 다국어 서비스 및 외국인 전용검색 제공 △ 금속활자 제작기술 등 학술연구자료를 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작됐다. 특히 직지의 원본을 촬영, 디지털화하여 전국 박물관은 물론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직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